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AIG그룹, 3/4분기 19억 달러의 순이익 기록

-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G그룹은 2009년 3/4분기 19억 달러의 높은 순이익(adjusted net income)을 기록하면서 최근 두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감.
 - AIG는 2008년 3/4분기 92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으나 2009년 3/4분기에는 각 사업부문의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19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함.
 - 그러나 2008년 3/4분기 이후 1,800억 달러의 정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지분의 80%를 정부에 넘겼고, 개별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등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두 분기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.
- 지난 8월 새로 임명된 AIG의 CEO 벤모셰(Benmoche)는 AIG그룹에 위기를 가져온 투자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낮아졌으며 CDS 등에서의 미실현 평가의 발생으로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다고 밝힘.
 - AIG의 투자사업부문인 AIG Financial Products는 2008년 12월 말 1.6조 달러에 달하던 파생상품 투자규모를 2009년 9월 1.1조원 규모로 축소하였음.
 - 순이익 기록에도 불구하고 벤모셰는 AIG가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영업성과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밝히며 향후 수익전망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함.
- 한편 지난 7월 차티스(Chartis)로 개명한 AIG의 보험부문은 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7배에 가까운 7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함.
 -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환율효과, 경기악화 등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3% 감소한 81억 달러를 기록함.
 - AIG 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105.2로 높은 편이나,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3/4분기 11억 달러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하는 등 실적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.

(Insurance Journal, 11/6)